

01 교회소식

더 높은 곳을 향하여!

미국, 영국, 케냐, 페루 등 해외 30여 개국에서 랜선으로 함께한 우리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공연.

02 생명의 말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행군할 때 비로소 얻을 수 있다.

03 기획특집

말레이시아 만민농아 지교회

쿠칭, 시부, 말라카, 셀랑고 등 말레이시아 만민농아 지교회들이 성령 충만할 가운데 창립 기념 예배와 축하 행사를 가졌다.

04 간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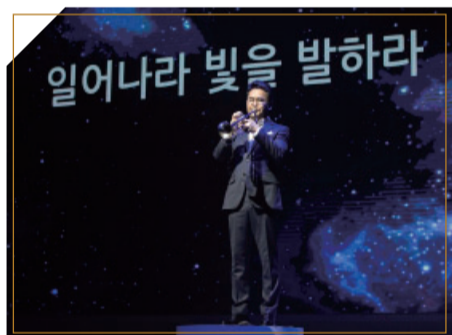
“모든 해답은 주님 안에 있어요”

주의 은혜로 물질 축복은 물론 삶 속에 기쁨이 넘친다는 김경희 권사와 부 롤리 웨임을 치료받은 콩고민주공화국 에바 성도.

만민뉴스

제931호 2020년 10월 25일(주간)
MANMIN NEWS
교회 대표전화 02-818-7000
www.manmin.org

30여 개국에서 랜선으로 동참한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공연



지난 10월 11일 주일, 우리 교회는 창립 38주년을 맞아 기념 예배 및 축하공연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모든 순서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이날 대예배 시에는 ‘영광’(고전 15:10)이라는 제목으로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영상 설교가 있었으며, 저녁예배는 교회 창립 38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공연으로 드러졌다.

전 세계 170여 개국을 커버하는 GCN방송 및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된 이날 예배와 축하공연은 영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9개 언어와 말레이시아어, 영어, 독일어 등 수어 13개 언어로 동시통역되었다.

특히 다중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미국, 영국, 캐나다, 러시아, 이스라엘, 인도, 태국, 케냐, 온두라스, 페루 등 30여 개국 및 국내 20여 지교회와 본교회 150여 곳을

연결하여 랜선으로 함께했다. 시종 랜선 예배에 함께하는 성도들의 모습이 본당단에 설치된 대형 LED 디스플레이(가로 13m, 세로 5.5m)를 통해 실시간 보였다.

랜선(LAN線)이란 현실 공간이 아닌 인터넷, 즉 온라인상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신조어이다. 이로 인해 참석자들은 마치 한 공간에서 예배드리는 것과 같은 느낌을 받았을 뿐 아니라 오랜만에 지인들의 얼굴을 보면서 예배함으로 창립 38주년의 기쁨이 더해졌다고 입을 모았다.

콜롬비아만민교회 담임 장정연 목사는 “랜선예배에 동참하면서 만민중앙교회 현장에 있는 듯한 감동을 받았습니다. 대예배 설교를 통해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으로 행해 오시고 우리 성도들과 영혼들을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더 깊이 깨닫게 되었습니

다”라고 감동을 전했다.

스위스 굴바하르 윈들러 성도(스위스 만민가정교회)는 “랜선으로 함께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저희는 만민과 하나입니다”라고 했고, 에스토니아 그리고리 콜레소프 목사(진리의 근원교회 담임)는 “잘 익은 열매 같은 성도님들의 환한 얼굴을 보며 지난 38년간 사랑과 희생으로 만민을 이끌어 오신 이재록 목사님의 헌신을 다시 느끼는 충만한 시간이 되었습니다”라고 전했다.

1부 기념예배 시 교역자 회장 주현철 목사는 ‘초대장’(요일 4:16)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했으며, 2부에서는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섭리’라는 주제로 예능위원회에서 사전 녹화로 제작한 축하공연 영상이 상영됐다. 찬양전문 닥시오케스트라와 예능위원회 팀들을 비롯해 공연전문 스태프

들이 조명과 음향, 영상 등을 맡아 감동의 무대를 선사했다.

몰도바만민교회 막심 추바추크 성도는 “공연이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주님을 향한 우리의 열정은 변치 않는다는 것을 보여 주었습니다”라고 했으며, 우크라이나 안톤 시사이 성도는 “공연을 보며 저희는 은혜를 받았고 큰 위로가 되었으며, 하나님의 사랑과 만민은 하나임을 느꼈습니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영적외교단체 회장인 미국 미하일 모글리스 박사는 교회 창립 38주년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보내 “만민을 향한 하나님의 역사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며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 것입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 그분의 능력의 손으로 만민을 더 높은 곳으로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라고 전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섬길 자를 오늘날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수 24:14~15)

당회장 이재록 목사

7년간의 전쟁을 통해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의 모든 왕을 굴복시켰고 많은 성읍을 진멸했지만 가나안 거민을 모두 쫓아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단번에 쫓아낼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의 믿음 성장과 전폭적인 신뢰 속에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지지요(출 23:29~30).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받은 기업에 남아 있는 가나안 거민들과 싸워 그들을 다 쫓아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지파들에게 기업을 주시며 취하라 하셨고, 가나안 거민들이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남김없이 다 몰아내신다고 약속하셨지요. 다만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약속을 믿고 얼마나 신실하게 지켜 행하는가에 따라 그 결과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1. 오직 하나님만을 섬길 것을 언약하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을 분배받은 각 지파들은 자신들의 믿음과 능력대로 기업을 침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호수아로부터 배운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하나님께 여쭙어 보기도 하고, 나름대로의 전술을 세워 열심히 가나안 땅을 점령해 들어갔습니다.

그러는 동안 많은 세월이 흘렀고 여호수아는 자신의 나이가 많아 떠날 때가 가까운 것을 알았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시키며 믿음을 다짐할 필요성을 느끼게 됩니다. 모세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그랬던 것처럼 이스라엘의 장로들과 두령들, 재판장들과 유사들을 불러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기지요(수 23장).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준행하며 여호와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사랑하기를 변함없이 하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와 함께하여 이스라엘 가운데 놀라운 승리를 주셨습니다. 앞으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며 계명을 지키면 어떤 강한 적이라도 물리치게 하시며 모든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시리라 약속하시지요. 반면에 믿음이 퇴보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잊어버려 이방인들을 가까이하고 우

상을 섬기면 어떻게 될 것도 다시 한번 알려 주십니다.

이윽고 여호수아는 전에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였던 에발산과 그리스산 사이에 위치한 세겜에 백성들을 모으고 장엄한 결단의 시간을 가집니다.

먼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약속을 이루신 신실하신 분이요, 강대한 애굽과 가나안 일곱 족속을 물리치신 권능의 하나님이심을 상기시켰지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이거든 어떤 신을 섬길 것인지 스스로 선택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섬길 것을 강조하고 여호와만 섬기라고 부탁드립니다(수 24:2~14).

이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는 여호수아의 확고한 선언 앞에 이스라엘 백성 역시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우리가 섬기고 그 목소리를 우리가 청종하리이다” 하며 거듭 맹세하였지요(수 24:15~24).

여호수아는 거듭 언약을 확인한 후에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 지켜야 할 계명들을 다시 한번 가르칩니다. 그리고는 큰 돌을 취하여 증거를 세우고 각자 자신의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지요. 이 일 후에 여호수아는 일백 십 세의 나이로 뜨거운 열정과 믿음의 삶을 조용히 마감합니다(수 24:25~29).

2. 불순종으로 고난을 당하는 이스라엘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고 죽은 후에도 가나안 정복은 계속 진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가 없는 이스라엘은 오래지 않아 믿음의 허점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요셉 자손들은 가나안 거민들을 다 몰아내지 못했고, 유다 지파도 “... 골짜기의 거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삿 1:19)라고 했으며, 스불론과 아셀, 납달리, 단 지파들도 가나안 사람들을 온전히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때로는 가나안 거민들의 저항이 너무 강해 이기지 못한 경우도 있고, 이길 힘이 있어도 이런저런 핑계로 대부분의 지파가 가나안 거민들을 온전히 몰아내지 않고 곳곳에 남겨 두었지요. 그러나 이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

지 않은 것이며, 이러한 불순종은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가시와 고통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스라엘이 이방 족속들과 섞여 살기를 결코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들과 섞여 살면 쉽게 우상 숭배에 미혹돼 하나님을 멀리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이 죽어 신실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지 못하게 되자 이스라엘은 이방 족속들과 결혼하기도 하고 그들의 우상을 받아들여 섬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이스라엘을 외면하셨고 이스라엘의 역사는 끊임없이 시험 환난에 시달리는 고통의 역사가 돼 버렸지요.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비극적인 것은 단 지파의 경우로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에서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자신들이 쫓겨났습니다(삿 1:34~35).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한 단 지파는 더 쉬운 땅을 찾아 자신들의 기업으로 삼았는데 그들은 처음 그 땅에 들어가면서부터 새긴 우상을 세워 섬기기 시작했고, 수백 년 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 여로보암이 단 지파의 땅에 금송아지 우상을 세움으로 온 이스라엘 중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되고 말았습니다.

결국 우상 숭배로 인해 이스라엘은 이방인에게 멸망당하고, 단 지파는 하나님의 인을 맞은 열두 지파 중에서 이름이 빠지고 말지요(계 7장).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고 약속을 저버린 나약한 신앙은 심한 우상 숭배의 패역함으로까지 연결됐고, 마침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자격조차 잃게 된 것입니다.

3. 변함없는 중심으로 순종하는 자녀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제까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과정을 살펴봤습니다. 모세와 함께하신 하나님, 여호수아와 함께하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때로부터 주신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지요. 이후로도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그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다윗 왕이나 여호사밧 왕의 시대와 같이 왕과 백성이

만민뉴스
등록 다-1840(1989. 7.12)

발행인 이재록
편집인 정성구
인쇄인 이호영

e-mail news@manminnews.com
홈페이지 www.manminnews.com

만민중앙성결교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29
대표전화 02) 818-7000



- 2호선 구로디지털단지역에서**
 - 1번 출구에서 환승 5536번 시내버스(교회앞 하차)
 - 2, 3번 출구에서 도보 10분 거리
- 7호선 남구로역에서**
 - 2번 출구에서 구로남초등학교 방향, 도보 10분 거리
- 시내버스**
 - 5536, 5615번(교회앞 하차)
 - 503, 504, 571, 652, 5618, 5619, 5626, 5630, 5712, 5714번(디지털단지 오거리 하차)
- 마을버스**
 - 금천 07번(교회앞 하차)
- 교회버스**
 - 각 지역별로 서울시 및 경기도 일원에 운행
 - 문의: 차량국(02)818-7391~3

만민중앙교회 예배안내

주일 대예배	1부 10:00 AM 2부 11:30 AM
주일 저녁예배	3: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 예배	9:00 PM
주일 빛과소금선교회(요식업) 예배	11:00 PM
금요철야예배	11:00 PM
수요예배	7:00 PM
화요찬양예배 [청년·가나안]	8:30 PM
수요찬양예배 [빛과소금]	9:00 PM
토요찬양예배 [중·고등부]	4:00 PM
다니엘철야 기도회	9:00 PM (매일/ 단, 금요일은 제외)
새벽예배	5:00 AM (매일/ 단, 토요일은 제외)

만민뉴스는 무료입니다

다만 정구독 시 우송료만은 정구독자가 부담합니다. 구독신청 후 온라인으로 송금하시면 됩니다.

우 송 료 : 1년분 10,000원 (신문대금은 무료)

구독신청 : manminnews.com 070-8240-5609

우리은행 1002-459-392191 (예금주 박정길)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해 계명을 지킬 때는 모든 열방 중에 뛰어나게 하셨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섬기며 악행을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을 외면하심으로 전쟁과 기근 등으로 큰 어려움을 당해야 했지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하나님의 모든 자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후반절에 “...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말씀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가 그 사랑을 입으며 하나님을 버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도 그를 버리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변함없는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유혹이나 핍박에도 상관없이 하나님께 온전히 순

종하는 자녀들을 얻기 위해 오늘날도 인간 경작을 하고 계십니다. 이런 자녀들을 찾아 이 땅에서나 천국에서나 마음껏 축복을 주시고자 지금도 변함없이 간절히 기다리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나안 정복사를 한 마디로 축약하면 믿음과 순종, 그리고 헌신의 역사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예비하신 가나안 땅은 오직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의 고백을 하며 행군할 때 얻어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한 여호수아와 갈렙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생명 다한 충성으로 나온 것처럼 헌신은 곧 믿음과 순종의 발로입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는 ‘거

룩하고 성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향한 여정 가운데 성결 운동은 반복적으로 나타났지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은 나그네 삶이요, 천국에 이르기까지는 끊임없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대항하여 싸워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설령 우리 앞에 어떤 장애물이 있다 해도 견고하며 흔들림이 없이 온전히 하나님을 믿는 정한 마음을 소유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변함없이 믿으며 담대한 믿음의 행함 가운데 온전한 열매를 얻을 때까지 그 행군을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항상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시며, 마침내 아름다운 천국에서 영생복락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레이시아 만민농아 지교회들 창립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



최근 말레이시아 만민농아 지교회들이 창립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를 가졌다. 이 행사에는 말레이시아 외에 21개국 만민농아 지교회들이 다중화상 프로그램을 통해 함께했다.

지난 9월 13일 쿠칭만민농아교회 창립 7주년을 시작으로 20일에는 시부만민농아교회 창립 4주년, 27일에는 말라카만민교회 창립 10주년, 10월 4일에는 셀랑고만민농아교회 창립 7주년, 18일에는 이포만민농아교회 창립 4주년 기념 예배 및 축하 행사가 있었다.

평생 농아로 살아야 했던 이들이 당회장 이재록 목사의 기도를 통해 귀가 열리고, 질병이 치료되며 삶이 변화되는 등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므로 농아 선교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현재 만민농아 지교회들은 말레이시아, 태국, 라트비아, 콜롬비아 4개국에 14개 지교회와 태국, 중국, 덴마크, 프랑스, 미국, 호주 등 18개국에 가정교회들이 있다.



“물질, 건강, 행복, 신앙생활 안에 모든 답이 있었네요!”



김경희 권사 (62세, 청주만민교회, 첫출 우측에서 두 번째)

저는 가난한 어부의 딸로 태어나 일찍부터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난 뒤 풍족하지는 못해도 행복했지요. 그런데 1995년 남편의 사업이 기울어지기 시작하면서 가난의 어두운 그림자가 또다시 제 삶에 드리워졌습니다. 어두운 터널 속에 갇힌 것처럼 암담했지요.

그러던 1996년, 저는 지인의 소개로 만민중앙교회 '2주 연속 특별 부흥성회'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교회에 다녔지만, 그토록 뜨겁고 충만한 분위기는 처음이었습니다.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난하고 힘든 사람들은 오늘 여기 답이 있을 것입니다”라고 하셨습니다. 귀가 번쩍 열렸지요. 한 말씀도 놓치지 않으리라 경청했고, 이어 당회장님 기도로 뇌성마비 환자가 치료받아 걷고 뛰는 광경은 놀라움 그 자체였습니다.

그날 저는 현실과 타협하던 그동안의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회개했고, 이후 주일 성수는 목숨과도 바꾸지 않으리라 마음먹었습니다. 틈나는 대로 말씀을 듣고 읽으며 달라진 저의 모습을 남편은 이상

하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남편을 위해 금식하며 제가 느끼는 행복을 남편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지요.

그 해에 저희는 사업을 정리해 충북 진천으로 내려갔는데, 이후 당회장님의 ‘십자가의 도’ 설교 시리즈를 듣게 된 남편은 큰 은혜를 받아 청주만민교회에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예배 시 당회장님의 환자기도로 허리디스크를 치료받으며 충만해졌지요.

남편의 적은 월급으로 때로는 쌀을 살 돈이 없어 자녀들의 도시락도 못 싸줄 만

큼 경제적인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힘이 들었지만,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믿음으로 심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남편은 재정 부장과 차량 봉사를 하고, 저는 식당 봉사 와 구역장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 나라에 충성했지요.

한편 사업터에 축복받아 교회에 힘이 되고자 기도하던 중, 2011년 남편이 유압 호스 제작 및 각종 자재를 판매하는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은 컨테이너에서 시작했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날로 번창했지요. 사업에 필요한 장비를

들여놔야 할 때 당장 자금이 없어 고민하니 장비업체 사장님이 천천히 값으라며 먼저 설치해 주는 등 모든 거래처가 기다렸다는 듯이 주문을 하고 저희를 도와주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늦은 나이에 아무것도 없이 시작하는 것을 염려했지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십일조가 늘며 차고 넘치게 채워 주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 상대를 배려하며 정도 경영을 하려 하니 거래처들이 먼저 찾아주는 곳이 되었고, 지금은 직원들을 두고 사업터 두 곳을 운영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수년 전부터는 차매를 앓는 친정어머니와 몸이 불편하신 시어머니를 저희 집에 모셨는데, 주변에서는 제게 수고한다고들 하지만 저는 너무 감사해서 찬양이 입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두 분이 주님 사랑을 알고 구원받으시리라는 소망이 있으니까요. 또 세 딸도 교회에서 여러 사명으로 헌신하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주님을 만나 구원받은 것만으로도 감사한데 물질의 축복까지 넘치게 부어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부 롤리 궤양을 치료받고 신앙까지 회복되었습니다”

에바 카부에 성도 (31세, 콩고민주공화국 킨샤사만민교회)



올해 4월, 저는 오른손 손가락이 간지러워서 긁기 시작했습니다. 가려움이 멈추질 않아 계속 긁다 보니 통증은 심해졌고 손가락이 부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몇 주 후에는 손 전체가 퉁퉁 부어 올랐지요. 부은 손의 통증이 가슴으로까지

전해져 고통스러웠고 너무 아파 잠도 제대로 잘 수 없었습니다.

의사는 ‘부 롤리 궤양(결핵균에 의한 감염질환으로 서서히 살을 썩게 만들고 근육과 뼈까지 침투할 수 있음)’이라고 했습니다. 매우 치료가 힘든 병이지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했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매우 두려웠습니다.

교회에 연락해 제 상황을 전달하자 한진범 담임목사님이 제게 전화를 주셔서 “형제님은 교회 일꾼이고 찬양사역자입니다. 마음에서 두려워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은 제게 믿음을 심어 주셨고 질병은 죄에서 비롯된다고 설명해 주시면서 제가 게으른 신앙생활을 했음을 깨닫게 해 주셨지요.

저는 눈물로 회개하면서 제 신앙의 회복과 치료를 위해 기도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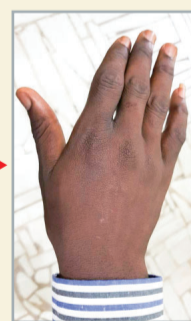
습니다. 그렇게 통회자복 한 뒤, 목사님이 저희 집에 심방을 와 주셨습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던 중 제 마음속에서 치료받을 수 있다는 확실한 소망이 생겼지요.

당회장 이재록 목사님께서 기도해 주신 권능의 손수건(행 19:11-12)으로 담임목사님이 기도해 주시자 제 가슴에서부터 뜨거움이 올라왔습니다.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기도가 끝나자마자 통증이 사라지더니 심방 후에는 언제 아팠나 싶을 정도로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너무 무겁게 느껴져 움직이는 것조차 어려웠던 오른손을 가볍게 움직일 수 있었고, 몸에 모든 통



▲ 기도 받기 전



▲ 기도 받은 후

증이 감쪽같이 사라졌지요. 할렐루야!

고통스러운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새롭게 결단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명자가 되게 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국내 지교회, 지성전 주소 및 연락처

주일 대예배, 주일 저녁예배, 금요일아침예배를 서울 만민중앙교회와 NSS-6를 통해 동시 화상예배로 드립니다.

- 공주만민교회 충남 공주시 번영1로 34 ☎041)881-7000, 010-3030-7025
- 광주만민교회 광주광역시 서구 하남대로 550번길 39-33 ☎062)513-2455, 010-8888-0727
- 구미만민교회 경북 칠곡군 북삼읍 금오대로6길 30 ☎054)920-4512, 010-3343-1537
- 김해만민성결교회 경남 김해시 삼정동 43-15 메디피아 4층 ☎010-6218-0703
- 남포항만민교회 경북 포항시 남구 새천년대로 409-15 ☎054)281-2468, 010-9773-7017
- 대전만민교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로 26 ☎042)625-1205, 633-6283, 010-5434-3927
- 마산만민교회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0-6 ☎010-8741-2073

- 목포만민교회 전남 목포시 상동 비파로 135-1 2층 ☎010-6507-7535
- 무안만민교회 전남 무안군 해제면 해제지로 167-82 ☎061)452-7443, 010-3153-1723
- 밀양만민교회 경남 밀양시 시청서길 36 ☎055)353-9192, 010-9382-2073
- 부산만민교회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동평로 168 ☎051)805-3898, 010-9140-4194
- 사랑만민교회 충남 계룡시 엄사면 향향리 374 ☎042)841-0091, 010-7195-1099
- 서산만민성결교회 충남 서산시 무학로 1895 ☎010-6306-9798
- 속초만민교회 강원도 속초시 만리공원길 7-1 3층(교동) ☎033)637-0271, 010-7733-1327
- 순천만민교회 전남 순천시 조례못동길 27 ☎070-4028-2515, 010-2536-2515
- 아산만민교회 충남 아산시 번영로169번길 22 ☎041)546-1537, 010-2672-0244
- 여수만민교회 전남 여수시 둔덕3길 11-2 ☎061)652-8311, 010-2325-1228
- 원주만민교회 강원도 원주시 개운5길 57 1층 ☎010-5510-6300

- 익산만민교회 전북 익산시 평동로2길 6 ☎063)853-0675, 010-3637-0263
- 전주만민교회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한철길 30 ☎063)223-9991, 010-4202-1537
- 제주만민교회 제주시 절물 2길 32 해피하우스 701호 ☎064)712-0058, 010-2689-2332
- 진주만민교회 경남 사천시 사천읍 선인길 17, 2동 3호 ☎055)852-5815, 010-9196-3927
- 천안만민교회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1길 5 ☎041)577-7077, 010-3447-7077
- 청주만민교회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옥산면 가락길 71 ☎043)293-7077, 010-8291-7173
- 춘천만민성결교회 강원도 춘천시 옥산포길 17-7 ☎010-2090-7710
- 충주만민교회 충북 충주시 용산동 1210 ☎043)845-0617, 010-2447-9217
- 강동지성전 서울시 강동구 양재대로 1508, 호유빌딩 지하 ☎02)489-3766, 010-2201-0542
- 검단지성전 인천시 서구 완정로 162 ☎010-5611-7254

- 구리지성전 경기도 구리시 안골로 46, 광명빌딩 5층 ☎031)552-7397, 010-2290-1856
- 부평지성전 인천광역시 부평구 주부토로 112, 5층 ☎010-5611-7254
- 북부지성전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172 ☎02)995-9951, 010-7736-9333
- 분당지성전 성남시 분당구 아람로 95 ☎010-2208-5719
- 수원지성전 경기도 수원시 팔달문로 150번길 26 2, 3층 ☎031)202-8480, 010-4820-1700
- 안산지성전 경기도 안산시 상록구 광덕산로 22, 은성빌딩 3층 ☎031)485-9143, 010-7773-0357
- 영종도지성전 인천광역시 중구 은하수로 351 832동 402호 ☎010-9972-0743
- 의정부지성전 경기도 의정부시 평화로 483, 2층 ☎031)840-2906, 010-4710-9649
- 이천지성전 경기도 이천시 이삼대천로 117번길 12 ☎031)635-9103, 010-2718-7458
- 인천지성전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남로 120 백세빌딩 10층 ☎032)863-9857, 010-9972-0743
- 일산지성전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강촌로 18, 아원B/D ☎031)905-2419, 010-4710-9649